

# 요즘 가장 핫한 김신영, 떴다하면 화제

라디오 DJ '정오의 희망곡' 10주년 21일 공개방송 겸 콘서트 신형 채도 전국노래자랑 'MC 데뷔' 16일 첫방 녹화 장면 SNS 타고 '화제성 톱10'

방송인 김신영의 '주가'가 제대로 올랐다. KBS 1TV '전국노래자랑'의 새로운 진행자가 된 이후 MZ세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전국노래자랑' 녹화 현장은 SNS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등 연말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그가 10년간 진행해온 MBC 라디오프로 프로그램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정오의 희망곡)의 10주년 공개방송에도 신청자가 몰리면서 김신영의 저력을 새삼 입증하고 있다.

### ●10주년 콘서트 직접 선곡도

김신영이 2012년 10월 22일부터 진행한 '정오의 희망곡'은 10주년을 맞아 21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공개방송 겸 콘서트인 '텐션업!'을 연다.

200여 명의 청취자를 관객으로 불러 2시간 30여 분간 다양한 초대 가수의 공연과 토크 시간 등을 마련한다. 감염병 사태 이후 관객을 모아 진행하는 공개방송은 처음이다.

특히 6월 세상을 떠난 방송인 송해에 이어 김신영이 최근 제2대 '전국노래자랑' MC로 발탁되면서 화제성이 치솟자 시청자의 관심은 라디오로까지 향하고 있다. 그가 "나를 성장시킨 무대"로 여러 차례 '정오의 희망곡'을 언급한 덕분이다.



방송인 김신영이 최근 KBS 1TV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자로 발탁된 후 각종 화제성 차트에서 선전하며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관객 모집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각종 SNS에는 공개방송을 신청한 사람들의 각종 후기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팬들은 "다음날인 22일 안산시 단원구 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전국노래자랑' 안산시 편 녹화에

도 참여할 것"이라며 관련 일정까지 공유하고 나섰다.

'정오의 희망곡'을 연출하는 용승우 PD는 3일 "김신영이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을 맡은 이후 확실히 반응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청취자의 폭도 넓어진 것을 체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신영이 10년간 애정을 쏟은 프로그램인 만큼 '텐션업!' 콘서트의 초대 가수 섭외부터 노래 선곡까지 직접 제작진과 논의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년간 김신영의 성장을 지켜보며 위로와 기운을 얻은 청취자들의 사연도 다채롭게 녹여 "편안한 축제 한마당"을 만들 계획이다.

### ●'전국노래자랑' 첫 방송 관심!

그에 앞서 16일에는 김신영의 '전국노래자랑' MC 데뷔전인 하남시 편이 방송된다. 지난달 17일 녹화한 당시 무대는 이미 온라인에서 한 차례 화제물이 됐다. 지난달까지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등에서 진행된 녹화 현장도 SNS에서 각종 '짤'(짧은 영상이나 사진)로 인기에 나들고 있다.

방송가 안팎에서는 '전국노래자랑'의 시청률 결과에도 호기심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노래자랑'의 연출을 총괄하는 김상미 책임프로듀서는 "젊은 세대 시청자의 새로운 관심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시청률 추이에도 (관심)반영되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이미 각종 화제성 차트에서는 변화가 시작됐다. '전국노래자랑'은 화제성조사 회사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최근 발표한 9월 4주차(19일~25일) '비드미라 TV화제성 톱10' 8위에 랭크되면서 9월 한 달 동안 해당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고우리, 5살 연상 사업가와 비공개 결혼



고우리

결그룹 레인보우 출신 고우리가 5살 연상의 사업가와 3일 결혼했다. 결혼식은 서울 모처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 50여 명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중순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2009년 레인보우로 데뷔한 고우리는 그룹 해체 후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여신강림' 등에 출연했다. 지난달 30일 첫 방송된 올레tvN 오리지널 드라마 '가우스전자'에 출연 중이다.

#### 박은빈, 美 비평가협회 행사서 라이징스타상



박은빈

배우 박은빈과 박찬욱·황동혁 감독이 미국비평가협회(CCA)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상을 받는다. CCA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아시아 태평양 시네마&TV 창립 기념행사(APCT) 수상자 명단에 따르면 ENA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활약한 박은빈이 라이징스타상을 받는다.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과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은 각각 영화와 TV 부문서 감독상을 받는다. 5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페어몬트 센추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APCT는 올 한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영화·방송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다.

#### god, 데뷔 25주년 앞두고 완전체로 콘서트



그룹 god가 '완전체'로 콘서트를 연다. 3일 공연 주관사인 아이오케이컴퍼니에 따르면 god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만난다. 2018년 개최한 콘서트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는 공연으로 박준형, 데니안, 윤계상, 손호영, 김태우 멤버 전원이 참여한다. 아이오케이컴퍼니는 "god가 데뷔 25주년을 앞두고 팬들과 소통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이정재, 이달 영화배우 브랜드평판 1위



이정재

한국배우 최초로 미국 에미상 TV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은 이정재가 10월 영화배우 브랜드평판 1위에 올랐다. 이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영화배우 50여 명의 브랜드 빅데이터 2억9880만 여개를 분석한 결과다. '에미상', '수상하다', '오징어게임' 등의 키워드가 높게 분석됐다. 글로벌 차트에 오르며 주목 받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의 하정우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 '공조2: 인터내셔날' 현빈이 각각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 이상보, '마약 투약 증거 없다' 무혐의 처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던 배우 이상보가 혐의를 벗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상보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과수 분석 결과 이상보는 소변과 모발에선 긴급체포의 근거가 됐던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상보가 주장했던 대로 병원에서 우울증 약과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은 항정신성 약과 일치하는 성분이 나왔다. 간 이 시약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

## 가을 시네마, 공포에 빠지다

공포물로 비수기 극장가 틈새 공략 정신과 의사 다룬 '스마일' 6일 개봉 '오편:천사의 비밀' 속편도 12일 공개 韓영화 '귀뚫' '미혹' 19일 동시 출격



'스마일', '오편: 천사의 탄생', '귀뚫', '미혹(원족부터)' 등 국내의 공포영화가 10월 잇달아 개봉한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메가박스중앙(주)·와이드윌리스(주)·유엔케이엔터테인먼트

극장가 비수기로 꼽히는 10월 장르 마니아를 공략할 공포영화가 밀려온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제작돼 손익분기점이 낮은 공포영화가 비수기 극장가의 틈새를 메울 공략에 나선다.

6일 개봉하는 '스마일'은 기괴한 미소와 함께 죽음을 맞은 환자들을 추적하는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그린다. '공포소설의 대가' 스티븐 킹이 극찬해 일찌감치 장르 영화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6월 22일 처음 공개돼 3일 현재까지 조회수 2070만 뷰를 넘은 티저 예고편이 관심을 입증한

다. 그 한 달 앞선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레드 레코닝 파트1' 예고편의 1128만 회를 훌쩍 뛰어넘었다.

공포영화 팬들의 기대를 가장 모으는 작품은 12일 스크린에 걸리는 '오편: 천사의 탄생'이다. 2000만 달러(약 288억 원)로 제작해 7791만 달러(약 1122억 원)를 벌어들인 2008년 '오편: 천사의 비밀'의 속편이

다. 전편에서 12살의 어린 나이로 천사의 얼굴을 한 사이코패스 살인마 에스더를 소름 끼치게 연기해 '천재 아역'이라는 극찬을 들었던 이사벨 페란이 같은 역으로 복귀했다. 정신병동을 탈출한 뒤 부유한 가족의 실종된 딸로 위장한 에스더의 이야기를 담았다.

19일에는 두 편의 한국영화가 나란히 판

객을 만난다. 단편영화로 호평받은 탁세웅 감독과 김진영 감독이 각각 연출한 '귀뚫'과 '미혹'이다. 박하나가 주연한 '귀뚫'은 수살귀(물귀신)가 산다는 소문이 도는 저수지 근처의 대저택에 들어가게 된 간병인의 이야기다. 주연 박효주를 위해 송해교가 SNS를 통해 응원에 나서 화제를 모은 '미혹'은 아이를 임양한 부부에게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일들을 그린다.

한 멀티플렉스 극장 관계자는 "적은 예산에 아이디어가 승부하는 공포영화가 위축된 극장가에서는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색채와 콘셉트가 가장 뚜렷한 장르인 만큼 탄탄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공포영화의 힘이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24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 214억 원의 수익을 낸 2017년 한국영화 '곤지암'과 외화 권저렴 등이 이를 보여준다.

이상미 기자 smlee@donga.com

## '공조2' 흔들림 없는 독주...600만 돌파

현빈·유혜진 주연 영화 흥행세 과시 '정직한 후보2' '늑대사냥' 등은 고전

현빈·유혜진 주연 영화 '공조2: 인터내셔널'이 흔들림 없는 흥행세를 과시하는 가운데 개천절 연휴를 겨냥한 개봉작들이 극장 관객 감소세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3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망에 따르면 '공조2'는 2일 현재까지 누적 관객 608만

명을 모았다. '범죄도시2'(1312만 명), '타건: 매버릭'(877만 명), '한산: 용의 출현'(736만 명)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예년보다 이르고 짧은 추석 명절 연휴를 피했던 다른 작품들과 달리 추석을 앞둔 7일 개봉한 영화는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다 9월 28일 개봉작 '정직한 후보2'에 밀려 이날 2위로 내려왔다. 하지만 사흘만인 30일 다시 정상을 탈환했다.

반면 추석 연휴 대신 토요일인 1일부터

개천절인 3일까지 그리고 역시 토요일인 8일과 한글날인 9일 및 대체휴일인 10일로 이어지는 연휴를 노려 지난달 말 개봉한 한국영화는 고전하고 있다.

같은 날 개봉한 라미란 주연 '정직한 후보2'와 류승룡·염정아의 뮤지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며 2일까지 첫 주 39만 명과 26만 명을 모으는 데 그쳤다. 한 주 전인 21일 개봉한 '늑대사냥'은 호불호 평가에 발목 잡혀 2주 만에 박스오피스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일 현재까지 42만 명을 동원했다.

'공조2'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극장 관객이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 10월 첫 주말인 1일과 2일 극장 관객은

85만 명으로, 감염병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 첫 주 토요일 관객 182만 명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치다. 감염병 여파를 감안 하더라도 공휴일인 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이었음을 고려하면 예상 밖의 감소세다.

연 영화 관계자는 3일 "최성수기인 여름 시즌 대작들마저 관객을 나눠가지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면서 "10월 초 두 차례 연휴기간 흥행을 노린 기대작의 동시 개봉은 무리수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극장가는 5일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편 버전'에 이어 중순 '블랙아담'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개봉이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이상미 기자